

나주 미래산단 정상화 힘 모은다



나주미래산단 조성 모습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 대책위 출범 전문가 참여 문제점 진단·해법찾기 조성사업 박차...이달말까지 분양 공고 부채 해결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나주시가 나주 미래 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 채무는 보증채무 포함 2631억원으로 2014년(추경기준) 예산규모 7117억으로 시 전체 예산의 3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채가 332억9400만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료가 302억9700만원, 보증채무가 199억이다. 보증채무는 나주 미래산단 조성에 1880억원,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16억원으로 만기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채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증채무액 199억을 제외하면 순수 채무액은 635억9100만원으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산단이 정상적으로 조성·분양되는 것이 부채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다. 최근 이를 위해 교수, 전문가,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정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하고, 미래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찾기에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와 첫 모임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서 대책위는 시 측에 집행부 및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나주시 재정위기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의 의미대로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시에 구성된 '재정위기 대책TF팀'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한 명씩 참여하게 하고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범시민 대책위원장에 문성기 전 시의원, 간사에 김광덕 나주사상시민회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김광덕 간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집행부의



나주 미래산단 조감도

나주 미래산단(혁신산단) 개요



- 위치: 나주시 왕곡면(장산·양산·덕산리), 동수동 일원
- 면적: 178만5120㎡
- 사업비: 2650억(국비 354억, 시비 46억, 민자 2250억)
- 공정률: 45%(9월 3일 현재)
- 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화학, 기계 및 장비, 식품
- 추진현황
 - 2008년 7월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 2010년 2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2012년 5월 공사착공
 - 2013년 7월 사업시행자 변경(나주시→나주미래산단)
 - 2014년 1월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 2014년 6월 사업명칭 변경(나주 미래 일반산업단지→나주 혁신산업단지)
 - 2015년 12월 31일 공사 준공 예정.

대책반에 들어가 미래산단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을 해야 한다"며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도 주인 의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개발방식으로 조성됐다. 나주시 왕곡면 동수동 일대에 위치한 미래산단은 호남고속철도, 무안 국제공항, 대불항만, 무안간 고속도로, 국도 1호, 23호선 등과 연결돼 사업 초기에는 공장부지 문의가 쇄도했다.

하지만 2008년 시행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이 불확실하게 됐다. 이후 2012년 민선 5기 임성훈 시장이 출범하면서 당초 조성면적 295만여㎡(89만4000평)를 181만790㎡로 줄여 전자·전기 제조업과 관련된 연관산업 집적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첫 삽을 떴다.

이 과정에 미래산단 조성에 참여한 민간투자사 2곳이 시를 상대로 25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미래산단은 송사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나주시 재정위기 범대책위원회' 준비모임.

미래산단 관련 재판도 이르면 올해안에 1심 판결이 예상된다. 오는 17일과 24일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올 12월 초까지는 1심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관련 소송도 마무리되면 미래산단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6월 미래산단 명칭을 '나주혁신 산업단지'로 바꿔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나주혁신 산업단지는 이달 말쯤 분양공고를 내고 택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치 업종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화학, 금속, 기계 및 장비, 식품 등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추진

나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주관의 2013년도 공기업 업무 경영평가 결과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공급원가 대비 요금수입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수도 34.1%, 하수도 9.3%로 나타났다.

나주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당 2510원) 대비 34.1%(㎡당 855원)로, 전국 평균 82.6%, 전남 평균 70.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상수도를 공기업으로 운영중인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의 8개 시·군 중 최하위이다. 나주시 하수도요금 역시 생산원가(㎡당 2839원) 대비 9.3%인 ㎡당 263원으로 전국 평균 35.5%,

전남 평균 13.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남 8개 시·군 중 하위로 평가됐다.

이처럼 나주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도·농 복합형 시(市)로서 급수 수요가 적은 읍·면 지역까지 상·하수도를 보급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동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미뤄왔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상수도의 경우 2003년, 하수도의 경우 2007년에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강인규 시장 하루 8개 면·동 돌며 주민과 대화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29일 하루 동안 8개 면과 동을 릴레이 순방하는 강행군을 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송월·금남·성북동에 이어 오후에는 산포면·빛가람동, 영강·영산·이창동을 차례로 방문해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원로, 이통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보고와 향후 4년 동안 펼쳐갈 시장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제안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시장 업무추진

비내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용한 집행내역은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18일부터 KTX 나주역 정차가 4회 늘어나고, 노안지역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려는 협약을 체결해서 정주여건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원도심과의 갈등과 격차가 야기되기도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희망이 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전파진흥원, 휴대용 발전기 15대 나주시에 기증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 이하 KCA)은 최근 나주시 금천면사무소에서 휴대용 발전기 기증식을 가졌다. (사진)

KCA는 나주 지역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전파자원 총조사 사업에 사용했던 휴대용 발전기 15대를 나주시에 기증했다.

시는 기증받은 발전기를 지역내 읍·면에 배부해 농번기 긴급재해 복구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CA 한인영 전파관리실장은 "휴대

용 발전기가 농촌 지역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가깝게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CA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3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새 동지를 틀었다. KCA는 지난 6월 1사·1촌 체험마을을 협약을 맺은 무안군 해제면 송계마을에도 휴대용 발전기 1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예향**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

시내지역	지역지사
광천 366-8375	광산 062)944-0444
남광 222-9440	남원시 063)633-9911
남부 652-0175	군산시 063)467-2500
동광 264-2012	순창군 063)653-0444
동명 222-9054	정읍시 063)531-5544
동부 225-6001	서울보급소 02)313-5962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보성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출동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